

한국문화교류 소식

44호 2022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반려동물 양육과 생명존중이라는 책임감



나 응 식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홍보이사, 그레이스 동물병원 대표원장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동물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있는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평상시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국내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존재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 반려동물 양육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6%는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과 다름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펜데믹 시대에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낸 시간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도가 각각 38.4%, 37.1% 증가했다고 보고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문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면에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숫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3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중 개의 유기 비율은 95,261마리로 73.1%이며 고양이의 경우 33,572마리로 25.7%에 달합니다. 이를 하루에 유기되는 숫자로 바꾼다면 하루에 3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몇 살 일까요? 놀랍겠지만 1살 미만의 반려동물이 55%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문화가 높아지는 와중에도 유기되는 동물

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및 생활에 대한 팁들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 입양시에 가족 구성원 또는 반려인 자신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충동적으로 입양하였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과 생활을 못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과 원활한 동화가 되지 않으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로서 반려동물 입양계획을 세웠다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지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퇴근이 늦어지거나 여행을 가야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이를 도와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반려동물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개나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지 미리 검사를 받은 후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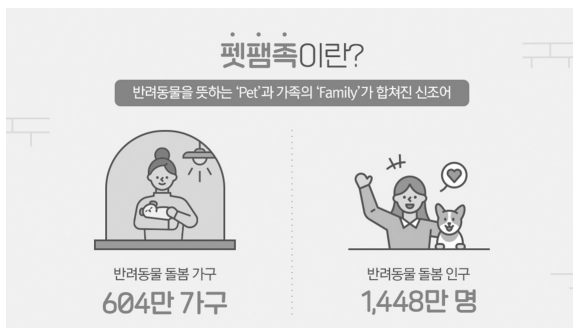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양육할 때는 경제적인 고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세 정도 됩니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건강부터 먹거리 등 모든 것을 보호자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의 양육비가 드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먹는 비용, 환경적인 비용 그리고 병원에 방문하는 비용까지 15년 기준 평균 2천만 원 정도 양육

비가 반려동물에게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시에는 반려동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노화속도가 평균 4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노령성 질환 또한 생후 6살부터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심장병 그리고 신부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며 돌봐줘야 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처음 어린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예뻐해 주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또한 반려동물의 신체 노화속도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신체적 특징,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반려동물 보험을 미리 가입하거나 전용 적금을 들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차후 큰 질환에 걸렸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신체 노화속도는 사람보다 4배 이상 빠르지만 꼭 명심해야 될 점은 그들의 평생 정서나 이가 2.5살의 어린아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견, 성묘가 되면 신체가 다 자라서 마음도 성견, 성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2.5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표현도 좋음, 싫음, 호기심, 사랑 등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무시 또는 복수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표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대표적인 의인화의 하나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2.5살의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10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존중이라는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꼭 고려하시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경영연구소)



특집: 현장의 눈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시상식 성황리에 열려 ... 150여 편 응모작 중 14명(팀) 본상 수상 영예

지난 5월 25일(수),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ICKC(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와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수상자 포함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대상을 비롯해 14편의 작품이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 하신 회원 여러분께 시상식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아래 기사를 통해 전달해 드리오니 다음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_ ICKC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이하 ICKC, 이사장 위호인)가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이 5월 25일(수)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5월 25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생명 존중 정신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응모 기간 동안 약 1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열띤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표재순 심사위원장(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나웅식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홍보이사,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 심의표 전 KBS 부산총국장, 이효진 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 및 주최 측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응모작 중 14편을 최종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하였다.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ICKC 공식 유튜브 채널 'Taekwondo Animal TV'를 통해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국내 1만여 태권도장 포함 전 세계 태권도 회원국의 유소년·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이 보고 즐기는 동물사랑·생명존중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은 위호인 ICKC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위호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ICKC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의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공동으로 주최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어서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양진방 회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일천만 시대를 맞아 이번 공모전이 우리사회에 건강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태권도 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이 함께 결부될 수 있도록 ICKC와 태권도협회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자 하며 축사를 마쳤다.



▲ 위호인 ICKC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 축사 중인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다음으로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최영민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주최한 박의근 ICKC 동물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주최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청소년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소중한 경험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더 뜻깊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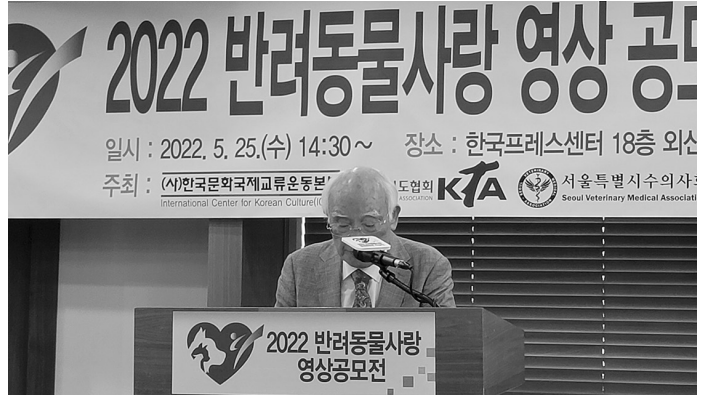
▲ 축사 중인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이어서 본선 진출작 14편의 상영과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우승자들의 품새 시범이 있었다. 태권도 품새 시범은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이번 공모전의 취지가 돋보이도록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특별히 마련하였으며, 자유품새 청소년부 1위에 빛나는 이진호 선수(문산제일고 2학년)와 공인품새 유소년부 1위를 차지한 한송연 선수(고양목암중 2학년)의 절도 있고 화려한 품새 시범이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진호 선수(左)와 한송연 선수가 품새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서 표재순 심사위원장이 심사경위 및 심사평을 발표했다. 표재순 심사위원장은 응모작들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하기가 까다로웠고 작품의 완성도, 대중성, 영상미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심사했다고 심사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 오른 본상 수상작은 그 중에서도 다른 작품들보다 노력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라고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심사소감을 마무리했다.



▲ 공모전 심사 경위 및 심사평을 발표하는 표재순 전 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

다음으로 이번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본상 시상이 이어졌다. 영예의 대상은 “똥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출품한 원은재 씨(41세)가 수상했고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은 애니메이션 “소중한 내 친구 모모”를 응모한 ‘모모 팀’(대표자 봉승관, 42세)이, 우수상은 애니메이션 “펫히어로즈”의 ‘험돌 팀’(대표자 전유현, 21세) 및 “나의 가족, 보리”를 출품한 신수진 씨(22세)에게 각각 돌아갔다. 윤해진 씨(40세)의 “태권도 다니는 강아지 몽희의 브이로그”를 비롯해 10명(팀)은 장려상을 수상했고, 각각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윤해진 씨(10명(팀))은 장려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장려상 수상자 윤해진 씨와 시상자 박의근 ICCC 동물복지위원장



▲ 우수상 수상자 신수진 씨와 시상자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 최우수상 수상자 봉승관 씨와 시상자 위호인 ICCC 이사장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2011년 설립된 지정기부금단체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의 조정원 총재가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다. ICKC는 올해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주요 태권도 단체 및 서울특별시수 의사회와 함께 태권도 교육과 결부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둥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삶”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원은재 씨에게 위로인 ICKC 이사장이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



▲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수상자 전원과 주최 측 내빈 기념 촬영

공모전 수상작은 ICKC 공식 유튜브 채널
“Taekwondo Animal TV”(태권도애니멀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채널 구독 부탁 드립니다.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대회, 나흘간의 열전 성공적으로 마무리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지난 4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4월 24일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K-타이거즈의 폐회식 환송공연 모습 (사진 고양시 제공)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태권도에서 올림픽을 제외한 두 번째 상위등급 대회로, 2018년 대만에서 열린 후 코로나19로 2020년 덴마크 대회가 취소돼 4년 만에 열린 행사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63개국 972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참가를 기록했으며 36개 종목에 걸쳐 272명이 메달을 수상했다. 대회 기간 관람객이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등 국내외 태권도인과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대회가 치러졌다.

이날 폐회식에서 주요 공식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부문별 수상자 종합시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홍보대사인 K-타이거즈의 환송공연이 진행됐다. K-타이거즈 공연단 100명은 국악기와 태권 동작의 콜라보, 국악과 대중가요, K팝 및 팝송에 맞춰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고, 경기 내내 1,700여 석



▲ 개막식에서 품새 경연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단의 다비스 가브리일로프(左)와 예바 가브리일로바(右) (사진 고양시 제공)


을 가득 메운 관중은 선수단과 자리를 함께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번 대회는 특히 러시아 침공 상황임에도 다비스 가브릴로프(남, 13세)와 예바 가브릴로바(여, 12세) 남매와 코치 등 우크라이나 선수단 3명이 참가해 각국 선수단과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국내외의 스포츠계 인사와 각국 대사 등 저명인사들의 방문도 대회 기간 내내 이어졌고, 친환경적인 폐페트병을 활용한 조직위원회의 유니폼과 기념품도 관심을 받았다.

조직위원회는 “전세계 태권도인이 보여준 열정이 고양시를 뜨겁게 달궜다”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열린 이번 대회가 세계에 고양시를 평화의 도시로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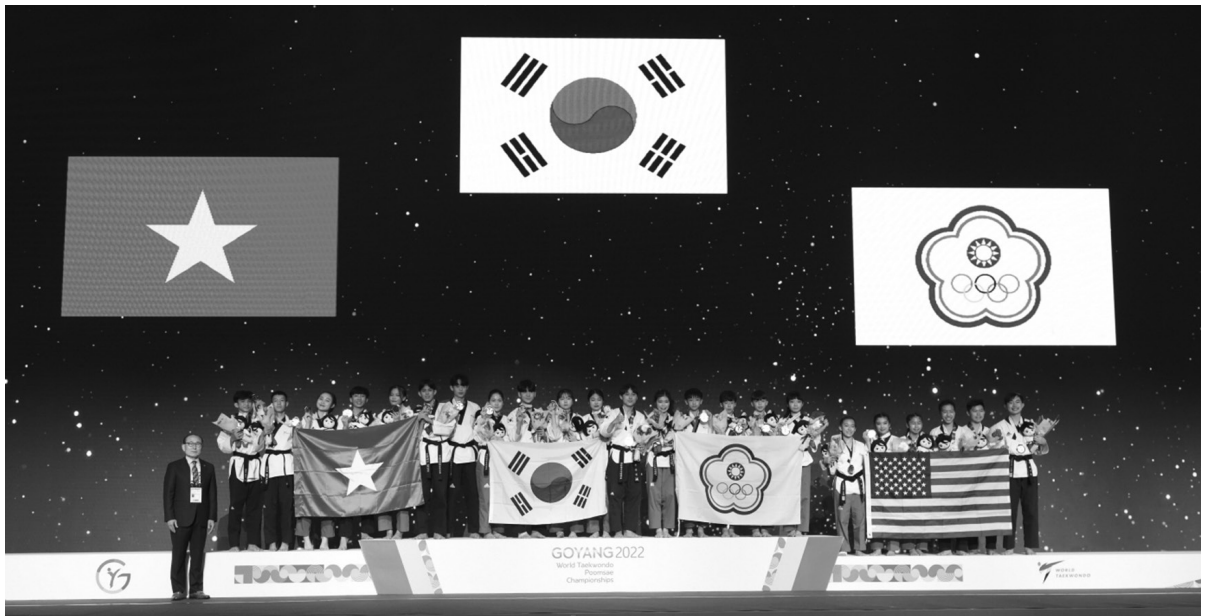
한국은 이번 대회에 선수 58명과 코

치진 11명 등 총 69명이 참여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1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이 남자 65세 이하 개인전 시상자로 나서 이란의 우승자에게 우승 메달을 수여했고, 우크라이나 선수단도 만나 격려하는 등 대회 주요 인사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 본회 박의근 재정위원장(右)이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폐회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폐막식 현장 (사진 고양시 제공)

‘영원한 봄의 나라’에서 꿈을 이어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 찬란한 마야문명을 꽃피웠던 마야 문명의 중심지,
유카탄 반도 연중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의 과테말라



주진숙

나의꿈국제재단 이사

들어가며

2022년은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60년간의 역사 속에서 과테말라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떼어 놓 수 없는 것은 국가 간의 문화교류일 것이다. 과테말라의 한인 이주 역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과테말라 한인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 최초로 과테말라에 정착한 한국인은 1962년 초대 주멕시코 대사를 역임한 이성기 씨를 따라 한국-과테말라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김용덕 씨이다. 김용덕 씨는 당시 육군대학에 군복무를 하던 도중 유학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성기 대사를 보필하면서 유학을 하기 위해 과테말라에 입국하였다고 한다. 김용덕 씨가 입국한 시기는 과테말라 내전이 시작될 무렵이어서, 사회적 혼란

으로 산카를로스 국립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김용덕 씨는 1968년 과테말라인과 결혼을 하여 군대나 정부기관 등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정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62년 과테말라에 한인이주 생활과 한국문화가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과 과테말라의 인연에 더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한글학교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를 겪은 후 봉제산업 경기가 활기를 띠자 국내와 남미에서 우리 동포들의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과테말라에서 봉제산업과 상업에 종사하던 대부분의 교민들은 보다 좋은 자녀교육을 위해 주중에는 인터내서



▲ 과테말라 한인문화회관 개관식

널 학교에서 자녀들이 수업을 받게 했고 주말에는 종교 단체를 통해 뿌리 교육에도 끈을 놓지 않았다. 교민 2세들의 한글교육을 위하여 1990년에 과테말라한인교회가 과테말라한국학교(토요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한인교회에서 가정집을 구입하여 한국학교로 사용하였다. 그 후 한글학교는 재과테말라한인회에 소속되었고 한인회에서 교회건물을 구매해서 유치반부터 중·고등부, 다문화반 주말 학교로 운영해 왔다.

수준 높은 교육과 뿌리찾기 수업에 대한 자부심

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반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과테말라 한글학교였지만 고질적인 교실 부족에 시달렸고, 다른 한편 한인문화회관 건립 필요성도 항상 제기되어 왔음에도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언제 당장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교민들의 불안한 생각을 뒤로하고 마침내 2015년 한인회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었고,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수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3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후로 교민 스스로 건립금액을 모



▲ 과테말라 한글학교 수업 모습

금하기 위해 한인회와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업을 추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2016년 11월 모금액이 80만 달러를 초과했고, 동포재단 지원금과 합쳐 목표금액 120만 달러의 92%를 달성했다. 이로써 과테말라 교민사회의 숙원이었던 한인 문화회관이 건립되었고 동포 학생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30~40명의 고교 졸업생 중 60% 이상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이 아닌 '한국 유학'을 선택하여 우수 대학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과테말라한글학교는 이미 한인사회 우수학교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마음한글학교

과테말라에는 다문화 가정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인 한마음한글학교가 있다. 한마음 한글학교는 다문화 자녀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별여성회 봉사단체의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 한마음한글학교에서는 역사, 예절, 문화, 캠프 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8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카를로스 국립대학 언어연수원 한국어과

과테말라 현지 사회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기관은 산카를로스 국립대학 언어연수원 한국어과이다. 1998년 한국문화의 날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문화 홍보, 전통무용소개, 한식전, 전통무용과 사물놀이공연, 시낭송대회, 전통혼례식 재현, 한국 국악단 초청 공연, 궁중한복전시회, 한국영화 상영, 한글서예전, K-POP 경연, 남북한 사진전, 전통문화소품전시회, 태권도 시연 등을 통해 꾸준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2012년에는 제1회 중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3개국 참가)하였으며, KBS Quiz on Korea 행사, 2013년 10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처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과 코이카 초청 한국어 연수와 같은 학생 교류에도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화랑청소년재단

화랑청소년재단은 남가주와 북가주, 보스턴과 하와이, 애리조나 등 미 전역에 21개 지부를, 한국과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필리핀 등 11국에 15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인 2세는 물론 각국의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과테말라에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두 번째 지부가 창단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과 2022년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 화랑청소년재단은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 난타, 재즈댄스, 화관무, 태권도 시범, 아트 갤러리쇼, 가야금·첼로·피아노 협주 등 다양한 앙상블 문화 공연을 통해 과테말라 눈 수술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을 하였다. 다음 세대의 뿌리 교육을 위해 화랑 과테말라 지부에서는 오키나와, 축구, 태권도 등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어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 화랑청소년재단 과테말라 지부 학생들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재 과테말라 한인회

지난 60년 역사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숨어있는 공로자들은 재과테말라 한인회 봉사자들과 주과테말라 대사관이다. 한인회는 2016년 한인문화회관 설립과 함께 문화회관 사용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였다. 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시설물 개방을 통해 소리 없는 한국문화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사관과 한인회는 매년 한국영화 상영회,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사관, 한인회 공동 주관 문화 행사로는 올해 14회를 맞이한 중남미-대한민국 예술제가 있다. 본 행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공연이었으나 현재 중미 한인교포사회와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아우르는 최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K-POP WORLD FESTIVAL,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서울로 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비보이 공연도 선보였으며, 한국 퓨전 국악그룹 “퀸”의 과테말라 국립극장 공연에서는 과테말라 민속 마림바 공연단이 함께하기도 했다.

2020년 3월부터 과테말라의 국정교과서와 민간 교과서에 흥부놀부, 단군신화, 별주부전 등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거 수록되었을 만큼 한국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은 과테말라 교육부와 과테말라 공립학교 내 한국어 정규교육 확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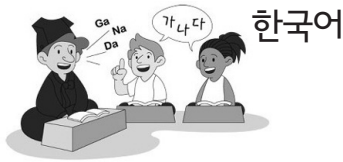
위한 MOU를 체결하여 올해 10개 공립중학교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채택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올해 한·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8일 60주년 문화공연이 개최되며, 수교 기념일인 10월 24일에는 과테말라 국경일 기념행사와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맺음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는 과테말라에서 세종대왕보다 더 알려져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중문화 강국 중 하나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영향은 과테말라에서도 피부로 느껴진다.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흡수하고 언어를 배운다. 서로 다른 문화임에도 동질성을 갖고 소통한다. 우리는 이제 한국문화라는 매개체로 일방향적 교류가 아닌 쌍방향 교류가 중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 것을 알리고 해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 문화교류를 왜 하느냐는 말에 어떤 이가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2019 중남미-대한민국 예술제” 공연 모습



한국어

‘나에게 한국어란’...

주베트남대사관, 제1회 말하기 대회 개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대사배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마쳤다고 지난 5월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하고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교육원, 세종학당재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나에게 한국어란(한국어란)’을 주제로 5월 24일 열린 최종 결선에는 북·남부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명이 나와 그동안 갖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에는 베트남 전역 27개 대학, 12개 세종학당, 11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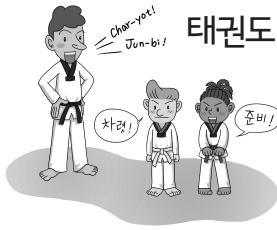
일반부 전공 부문에서는 하노이국립외국어대 하 투 화이가, 일반부 비전공은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소속 팜 티 투 후옌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중고교 부문은 하노이국립대부속외국어고 동 밍 응우엣이 대상을 받았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들은 향후 6개월간 이화여대, 단국대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박노완 주베트남한국대사는 “양국 관계 발전은 그간 묵묵히 노력해 주신 한국어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출처]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2022/05/26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77200084?section=search>



▲일반부 전공 부문 대상 수상자인 하노이국립외국어대 하 투 화이의 발표 장면
 (사진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제공)



태권도 박애재단 아시아 출범... 태권도로 세계 난민 돕는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태권도 박애재단 아시아'가 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겸 태권도박애재단(THF) 이사장, 이형택(법무법인 통대표변호사)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 이사장, 강대권(타키온소프트 대표)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 총재 등 재계 및 태권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태권도박애재단은 태권도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건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세계 각지 난민 캠프에 사범을 파견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으며, 조정원 총재의 주도 아래 2015년 9월 국제연합(UN)에서 처음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2016년 스위스 로잔에서 공식 출범했고, 이번에 아시아 지역의 활동 강화를 위해 조 총재와 강 총재가 뜻을 모아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를 설립했다.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는 세계 태권도협회 회원국 중 아시아 43개국과 오세아니아 19개국 정회원국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통한 난민, 고아, 피해자 및 탈북자, 재소자에 대한 구호·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디지털타임즈, 박성기 기자, 2022/05/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52702109970821011&ref=naver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강대권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 총재에게 재단 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폐회식 참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본회 임원진이 주요 인사로 초청되어 개회식과 폐회식을 참관했다.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4월 21일 열린 개회식에는 위호인 ICKC 이사장 및 전 ICKC 이사장을 역임했던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4월 24일 열린 폐회식에는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참석, ‘남자 65세 이하 개인전’ 시상자로 나서고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대회 주요 인사로서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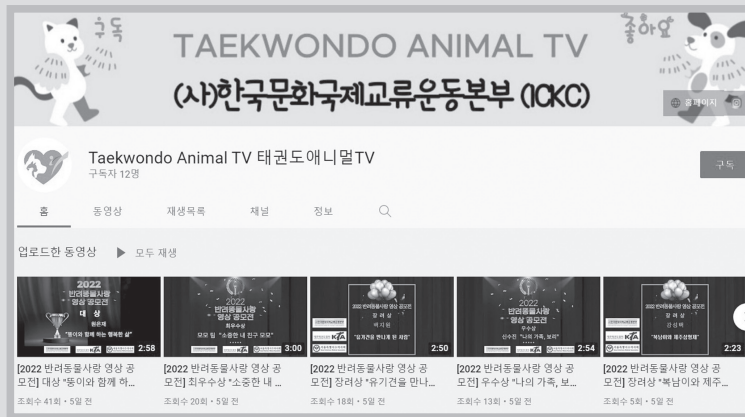


▲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폐회식에서 ‘남자 65세 이하 개인전’ 시상자로 나선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

■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ICKC 유튜브 채널 개설

지난 5월 25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ICKC와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공동 주최했고, 이날 시상식에서 150여 편의 응모작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 등 14편의 본상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은 새롭게 개설한 ICKC 공식 유튜브 채널 “Taekwondo Animal TV”(태권도애니멀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 자료 및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포함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ICKC 임원진과 사무국에서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구독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2차 심사 모임

지난 5월 10일(화)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ICKC 사무실에서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2차 심사 모임이 있었다. 이날 심사에는 표재순 심사위원장(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나응식 수의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홍보이사), 심의표 전 KBS 부산총국장, 윤문원 작가 겸 인성교육전문가,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 이효진 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 최영욱 ICKC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차 심사를 거친 40여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열띤 논의와 평가를 거쳐 본선 진출작 14편을 결정하였다. 이날 심사를 바탕으로 5월 25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 등 본상 시상이 이루어졌다.



▲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2차심사 모임에서 토의 중인 심사위원들

2022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2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구철회,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창옥, 김형중,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문경태,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순호, 박원출,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유영찬, 유자효,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향구,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홍계화, 홍미자, 황경애, (주)동일고무벨트, (주)루이제, (주)비이디벤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에이젠코어, (주)포스젯한도, (주)포스코, (주)포스코ICT, (주)P&H

가나다순, 2022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총액 : 69,88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이효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정순영 前 국회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디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전국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동물사랑 ·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 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2022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 5천만원
우수상 1천만원



주 최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후 원 :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서울특별시수의사회
Seoul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공모주제 :

- 반려동물, 유기동물 등 우리 주변의 동물과 함께 한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경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화, 비극적이지만 교훈적인 사례 등 소재·주제 제한 없음
- 동물 사랑 및 생명 존중의 가치를 참신하고 흥미롭게 대중적으로 영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

공모목적 :

- 국내 외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동물사랑·생명존중 교육용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기획·제작 영화의 시나리오로 채택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 (신인/기성 제한 없음)
- 개인 또는 공동, 1인(팀) 1편 출품 제한

접수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31일(일) 18시까지

수상작 발표 : 2022년 8월 25일(목) 예정

접 수 :

- 이메일 접수 : hangyobon@gmail.com
- 상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주최사 홈페이지(www.ickc-seoul.net) 또는 공모전 사이트 '위비티'를 참조

★ **친환경 철강**의 시대, 누가 펼치고 있을까?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철을 만드는 일,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포스코의 사명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발생 없이 철을 만들고
그 철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다시 재활용까지-

친환경 철강의 시대, 포스코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Green Tomorrow, **With POSCO**

posco

